

발한양상에 따른 건강상태의 체질별 편차에 대한 분석

김효정 · 이해정 · 진희정 · 김명근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al Deviation of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erspiration

Kim Hyo-Jung, Lee Hae-Jung, Jin Hee-Jeong, Kim Myoung-Geu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tendency of perspiration and health condition of Sasang Constitution and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dition and perspiration.

2. Methods

We recruited 1565 subjects in multi-oriental hospitals and researched their perspiration and health condition. Subjects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specialists in oriental hospitals, and had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ir chief complains aft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ation. All subjec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 tendency of perspiration including the amount and region of sweating, and the health condition such as meal, appetite, tiredness, health degree, and warm-cold preference. Based on these clinical data, we analyzed the Sasang Constitutional deviation of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erspiration.

We found the differences of answering using Chi-square test between-group comparison. We analyzed using SPSS 14.0 for Korean.

3. Results

The amount of sweating was related with degree of health condition such as tiredness, health degree, meal, appetite, and warm-cold prefere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groups.

4. Conclusious

According the region of sweating, there was some deviation of health conditions between Sasang Constitution. Especially sweating of head and neck meant good symptom for SE type but not for SY type. And the sweating on the chest and axilla meant bad symptoms for all Sasang Constitutional types.

Key Words: Constitution, Health Condition, Perspiration, Clinical Research

- 접수일 2009년 10월 22일; 심사일 2009년 11월 08일;
승인일 2009년 12월 02일
- 교신저자 : 김명근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590 Fax : 042-868-9480
E-mail : ilmong01@hanmail.net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Grant No. K09113)

I. 緒 論

일반적으로 땀은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陽加於陰 謂之汗”, “汗者精氣也”라 하여 땀은 陽氣가 進液을 滯留하여 체표로 배출된 것이며 인체의 정기(精氣)로서, 단순한 수액 개념 이상의 중요한 생리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²³.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체질 및 체질병증 별로 땀을 흘리는 양상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체질을 진단하고 병증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⁴⁶. 특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및 『東武遺稿』에서는 태양인과 태음인은 땀이 있으면 건강하고, 소양인과 소음인은 땀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하여 發汗이라는 동일한 생리현상이 체질별로 서로 다른 건강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8}.

이러한 개념은 최 등^{9,10}의 임상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의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11,12} 및 임상 사례보고^{13,1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평소 땀을 흘리는 정도 및 땀을 흘리고 난 후의 기분이 체질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 정도로, 문헌상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병증의 예후를 판단하는 생리지표로서의 땀의 양상 및 부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기관에서 모집된 체질이 비교적 명확한 1565명을 대상으로 發汗양 및 발한 부위 등의 발한 양상 및 식사량, 식욕, 피로도, 건강도, 寒熱 선호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실시하여, 발한 양상과 건강상태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체질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6년 1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전국 11개 한방병원과 10개 지역한의원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조사 종료 시점 이전까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관련 의무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며 만 9세 이상 85세 이하의 남녀로 본 연구에 협조 하려는 자 중, 아래의 진단요건을 만족하여 체질이 비교적 명확한 자로 하였다.

1) 체질진단 방법

사상체질전문의 혹은 사상체질 임상 5년 이상의 경력자 중 체질처방 비율이 90% 이상인 한의사가 면담을 실시하여 体形氣像, 容貌氣氣, 性質材幹, 炳證素證, 藥理記錄을 기반으로 체질을 진단하고 해당 체질 처방을 복용하도록 하여 아래의 기준에 만족하는 약리반응을 보인자를 해당 체질로 확진하도록 하였다.

2) 약리반응 평가 기준

체질처방을 최소 60첩 이상(동병증 처방) 투여 받고 최소 4회 이상 내원하여 경과를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 또는 소증이 중등도 이상 호전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체질처방을 60첩 미만 10첩 이상(동병증 처방)으로 투여 받은 경우에도 주증과 소증이 모두 중등도 이상 호전되었을 경우에 확진 범위에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주증과 소증의 호전여부는 대상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주증은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이 중등도 이상 호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증은 각 체질의 完實無病 항목에 해당하는 소증이 호전되거나 그 외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소증에서 중등도 이상의 호전이 있는 경우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상기 기준을 만족하여 체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소증 및 병증 지표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첨부1 참조). 설문응답 이전에 대상자에게 대상자 설명서를 안내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18세 이하의 대상자는 동의서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최근 6개월 내의 증상을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소증 및 병증 지표 중에서 발한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발한양, 발한 후 기분, 발한 부위, 이상발

Table 1. The Numbe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Each Group

	TE	SE	SY
Male(%)	246명(44.3)	137명(24.7)	172명(31.0)
Female(%)	357명(36.9)	269명(27.8)	342명(35.3)
*Year(yr)	49.2±15.7	43.4±16.1	47.5±15.2
Hight(cm)	162.2±9.0	161.7±8.8	161.6±8.7
Weight(kg)	67.2±11.9	56.1±9.7	58.9±9.7
BMI(kg/m ²)	25.4±3.2	21.4±2.9	22.7±2.8

*: Mean±SD

한의 유무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식사량 및 식욕, 피로도, 건강도, 한열선호도 등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한 양상에 따라 건강지표가 체질별로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회연구원의 기관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 (KIOM 승인번호: I-2008/010-001).

3.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Number(%) 또는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체질군 간의 응답 빈도수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관련 문항 중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은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의 3점 척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14.0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의한 분석 결과는 별도로 첨부하였다. (첨부2 참조)

Ⅲ. 研究結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

전체 대상자는 1565명으로 태음인은 603명, 소음인은 406명, 소양인은 514명이었으며 태양인은 42명으로 빈도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체질별로 성별,

연령, 키, 체중, BMI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Table 1)

2. 발한양에 따른 체질별 건강수준의 차이

발한양의 분포가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체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태음인은 ‘많다’, 소음인은 ‘적다’ 혹은 ‘없다’, 소양인은 ‘적당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땀을 흘리고 난 후의 기분도 체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태음인과 소양인은 ‘상쾌’, 소음인은 ‘피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발한양과 발한 후 기분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체질에서 발한양이 ‘많다’는 경우에는 땀을 흘리고 나면 피곤하다는 비율이 동일 체질의 여타 그룹에 비해 높았고 ‘적당하다’ 혹은 ‘적다’는 그룹에서는 상쾌하다는 비율이 높았다(태음인 p=0.003, 소음인 p=0.021, 소양인 p=0.002). ‘평소 땀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은 소음인의 경우에는 땀을 흘린 후 ‘피곤하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태음인과 소양인은 ‘피곤하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2)

식사량의 분포도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태음인은 ‘많다’, 소음인은 ‘적다’에 응답한 비율이 타 체질에 비해 높았다. 입맛의 관해서도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태음인은 ‘좋다’, 소음인은 ‘안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발한양과 식사량 및 입맛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체질에서 발한양이 많은 경우 동일 체질의 여타 그룹에 비해 식사량이 많았고, 반대로 발한양이 적은 경우 식사량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

1) “1. 매우 건강하지 못함”과 “2. 건강하지 못함”을 ‘건강하지 못함’으로, “4. 건강함”과 “5. 매우 건강함”을 ‘건강함’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Table 2. The Distribution of Feeling after Sweating according to the Amount of Sweating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asang Constitution	Amount of Sweating	Feeling after Sweating			p-value
		Freshness	Fatigue	N/A	
TE	*Heavy	86(39.4)	64(29.4)	68(31.2)	0.003
	Moderate	96(56.5)	20(11.8)	54(31.8)	
	Light	82(47.7)	37(21.5)	53(30.8)	
	Rare	18(47.4)	7(18.4)	13(34.2)	
	Total	282(47.2)	128(21.4)	188(31.4)	
SE	Heavy	8(12.7)	36(57.1)	19(30.2)	0.021
	Moderate	39(29.5)	45(34.1)	48(36.4)	
	Light	45(27.4)	61(37.2)	58(35.4)	
	Rare	10(21.3)	25(53.2)	12(25.5)	
	Total	102(25.1)	167(41.1)	137(33.7)	
SY	Heavy	32(25.0)	54(42.2)	42(32.8)	0.002
	Moderate	82(45.6)	42(23.3)	56(31.1)	
	Light	57(37.5)	40(26.3)	55(36.2)	
	Rare	16(32.7)	13(26.5)	20(40.8)	
	Total	187(36.7)	149(29.3)	173(34.0)	

*: Number(%)

Table 3. The Response Rate of Sweating on Each Region of Body.

Region of sweating	Sasang Constitution	Sweating of each region		p-value
		No	Yes	
*Head & Face	TE	209(34.7)	394(65.3)	0.004
	SE	182(44.8)	224(55.2)	
	SY	211(41.1)	303(58.9)	
Neck	TE	486(80.6)	117(19.4)	0.029
	SE	343(84.5)	63(15.5)	
	SY	444(86.4)	70(13.6)	
Chest & Axilla	TE	364(60.4)	239(39.6)	0.024
	SE	212(52.2)	194(47.8)	
	SY	306(59.6)	208(40.5)	

*: Number(%)

타났다(태음인 p=0.007, 소음인 p=0.003, 소양인 p=0.001). 입맛에 관해서도 소음인과 소양인 모두 땀양이 많거나 적당한 경우가 동일 체질의 땀양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비해 입맛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태음인도 이

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태음인 p=0.099, 소음인 p=0.004, 소양인 p<0.001).

한열 선호도 역시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태음인은 ‘더위가 더 싫다’, 소음인은 ‘추위가 더 싫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발한양과 한열신호도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세 체질에서 모두 발한양이 많은 경우가 동일 체질의 발한양이 적거나 없는 경우보다 더위를 싫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태음인 $p < 0.001$, 소음인 $p < 0.001$, 소양인 $p < 0.001$). 특히 태음인의 경우 ‘땀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이 ‘땀이 많다’고 대답한 그룹에 비해 ‘추위가 더 싫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발한양과 평소 피로를 느끼는 정도 및 건강상태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모든 체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발한 부위에 따른 체질별 건강수준의 차이

1) 頭面部

평소 주로 땀이 나는 부위가 머리나 얼굴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체질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음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이 가장 낮았다 ($p = 0.004$) (Table 3).

두면부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태음인은 머리와 얼굴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평소 땀양이 많다($p < 0.001$)’와 ‘더위가 더 싫다($p = 0.049$)’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인은 ‘입맛이 좋다($p = 0.036$)’, ‘평소 땀양이 많다($p < 0.001$)’, ‘더위가 더 싫다($p = 0.005$)’에서, 소음인은 ‘식사량이 많다($p = 0.03$)’, ‘평소 땀양이 많다($p = 0.007$)’에서 각각 두면부에 땀이 나는 그룹이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頸項部

평소 주로 땀이 나는 부위가 목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체질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음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소양인이 가장 낮았다($p = 0.029$) (Table 3).

경항부의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목 부위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소 땀양이 많다(태음인 $p = 0.001$, 소음인 $p = 0.006$)’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소양인은 ‘더위가 더 싫다($p = 0.002$)’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3) 胸腹部

평소 주로 가슴과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의 체질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음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이 가장 낮았다. ($p = 0.024$) (Table 3)

흉액부의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태음인은 가슴과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식사량이 일정치 않다($p = 0.003$)’, ‘추위가 더 싫다($p = 0.014$)’,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p = 0.005$)’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소음인은 ‘더위가 더 싫다($p = 0.038$)’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소양인은 흉액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땀이 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식사량이 보통이다($p = 0.022$)’의 비율은 높았고 ‘추위가 더 싫다($p = 0.039$)’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4) 背部

평소 주로 등에 땀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92$). 배부의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소음인은 등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소 땀양이 많다($p = 0.019$)’, ‘땀 흘리고 나면 피곤하다($p = 0.006$)’의 비율이 높았다.

5) 手足部

평소 주로 손발에 땀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손 $p = 0.573$, 발 $p = 0.792$). 수족부의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양인은 발에 땀이 나는 경우 ‘평소 땀양이 많다($p = 0.037$)’, ‘땀 흘리고 나면 피곤하다($p = 0.037$)’의 비율이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소양인 그룹에 비해 높았다. 소음인은 손발 모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식사량이 일정치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손 $p = 0.048$, 발 $p = 0.017$).

6) 陰部

평소 주로 사타구니에 땀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362$).

음부의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소음인이 陰汗이 있는 경우는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입맛이 좋다(p=0.009)’, ‘땀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p=0.003)’는 비율이 높았다.

7) 전신

평소 땀이 나는 부위가 특정 부위로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362). 전신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태음인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땀이 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동일 체질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소 피로도가 덜하고(p<0.001) 건강상태가 양호(p=0.00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양인도 피로가 없고(p=0.007), 평소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p=0.03)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8) 기타발한(自汗, 盜汗, 食汗)

평소 식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태음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자한이나 도한은 체질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없었다. 기타 발한 여부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자한, 도한이 없는 경우 식사량은 보통이며 땀양이 많지 않고 땀흘린 후에 기분도 상쾌하며 추위를 더 싫어하며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모든 체질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기타발한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체적으로 땀양이 많고 땀을 흘린 후에는 피곤하며 평소 피로도가 심하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식사시에 땀이 나는 경우는 식사량이 많고 입맛도 좋으며 평소의 건강상태도 양호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 체질에서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든 분석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IV. 考 察

發汗 여부와 건강수준과의 관계는 거의 모든 사상의학 관련 문헌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에

서는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⁷⁾이라 하였으며 『東武遺稿』에서는 ‘少陽少陰人 無汗則吉 太陽太陰人 有汗則吉’⁸⁾이라 하여 체질에 따라 땀을 흘리는 정도가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개괄적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태음인은 발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實實無病의 조건으로 보고, 머리부터 가슴까지 굵은 형태로 땀을 흘리는 것을 병이 나아가는 긍정적인 예후로 보았다. 반면 소음인의 발한은 亡陽證을 구분 짓는 중요 지표로, 체질적으로 부족한 陽暖之氣가 더욱 소모되어 나타나는 불량한 증후로 인식되었다. 소양인의 경우는 表病이 풀리면서 降陰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淸陽之氣가 완전히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방면으로 인식되었다^{3,5)}. 즉 발한양상이 체질별로 다를 뿐 아니라 ‘땀을 흘린다’는 동일한 생리현상이 체질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예후 판단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소 땀을 흘리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 및 식욕, 피로도, 건강도, 한열선호도의 분포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이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발한양상과 건강수준의 체질별 관계를 조사하였다.

우선, ‘평소 땀을 흘리는 양’ 및 ‘땀을 흘리고 난 후 기분’에 관한 분석에서는 태음인은 평소에 땀을 흘리는 양이 많고, 땀을 흘리고 나서도 상쾌함을 느끼며, 소음인은 평소에 땀을 흘리는 양이 적고, 땀을 흘리고 나서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최 등^{9,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체질별로 기본적인 발한 양상이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각 체질별로 발한양과 발한 후 기분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교차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체질에서 발한양이 ‘많다’는 경우에는 땀을 흘리고 나면 ‘피곤하다’는 비율이 동일체질 내의 여타 그룹에 비해 높았고, ‘적당하다’ 혹은 ‘적다’는 그룹에서는 ‘상쾌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즉 태음인의 경우에도 땀이 많다고 응답한 그룹은 적당하거나 적은 그룹에 비해 피곤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소음인의 경우에도 땀이 적당하

다는 그룹은 상쾌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동일 체질의 여타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체질별로 땀이 ‘많다’ 혹은 ‘적당하다’는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양의 땀을 흘리고도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 생긴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평소 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소음인은 땀을 흘린 후 ‘피곤하다’는 비율이 동일 체질의 여타 그룹에 비해 높았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낮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태음인은 ‘발한 후 상쾌’, 소음인은 ‘발한 후 피로’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식사량, 식욕, 피로도, 건강도, 한열 선호도 등을 선정하여 체질별로 발한양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 체질간에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세 체질 모두에서 발한양이 많을수록 식사량이 늘고, 식욕이 좋으며, 더위를 더 싫어하는 등 熱證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소 피로도 및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세 체질 모두에서 발한양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인의 경우에도 발한양이 ‘많다’고 응답한 그룹이 ‘적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식사량이 많고 식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발한양이 평소 피로도 와 건강정도 와도 무관하게 나타난 것은 기존에 소음인의 발한에 관해 알려진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한양에 따른 상기 항목의 응답 분포가 뚜렷한 체질적 편차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체질 내에서 한열 경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땀이 나는 부위 및 자한, 도한, 식한의 유무를 조사하여 발한양과 마찬가지로 식사량, 식욕, 피로도, 한열선호도, 건강도와의 관련성을 체질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평소 땀이 나는 부위가 머리나 얼굴 혹은 목 부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태음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태음인이 평소에 땀을 흘리는 양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아 발한부위에 관해 복수응답이 가능한 본 문항에 있어서도 타 체질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에 땀이 주로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인이 특이적으로 높았다.

발한 부위 중 頭面部의 발한 여부와 상기 항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두면부에 땀이 나는 경우 모든 체질에서 발한양, 식사량, 식욕, 한열 선호도에 있어서 동일 체질 내의 땀이 나지 않는 그룹에 비해 熱證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인의 경우 다른 국소 부위의 발한일 경우에는 대부분 식사량이 적거나 일정치 않고, 식욕도 좋지 않으며 피로도 심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두면부의 경우에는 여타의 증후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病愈之汗 人中先汗而一次發汗 胸液將快而活發¹⁵⁾’이라 하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人中之汗不汗也⁷⁾’라 하여 인체의 상부인 人中에 땀이 나는 것을 下陷된 陽暖之氣가 회복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증후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평소 피로도에 관한 문항에서도 소음인은 두면부에 땀이 나는 경우 평소에 피로가 ‘약간이다’ 혹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양인의 경우에는 ‘중간이다’ 혹은 ‘심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태음인의 경우에는 ‘없다’나 ‘심하다’는 양 극단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수치 변화를 나타냈다. 다만 본 설문이 발한 부위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한 후의 느낌을 묻는 형태가 아니라, 부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별 발한 부위와 발한 후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의 전면인 胸腋部의 발한 여부와 상기 항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세 체질 모두 가슴과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경우가 동일 체질 내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수준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음인은 다른 부위에 땀이 나는 경우와는 상이하게 熱證의 경향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건강수준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太陰人汗 始於頂者 可喜也 中於觀者 免危也 終於背者 病愈也⁷⁾’라 하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胸臆之汗 病大解也¹⁵⁾’라 하여 태음인이 가슴까지 땀이 나는 것을 양호한 예후로 본 것과 상반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문항이 국소적인 발한 부위를 묻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머리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가슴까지 땀이 나는 발한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오히려 흉액에만 땀이 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설문문항이 겨드랑이와 가슴부위의 땀을 구분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심리상태가 불안한 경우 증가하는 腋汗이 태음인의 胸汗이 길증이라는 결과를 상쇄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소음인이 전반적으로 발한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흉액에 땀이 나는 비율이 세 체질 중에 가장 높으며 건강 지표 또한 불량한 경향을 보이는 것에서도 흉액만이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체 후면인 背部의 발한 여부와 건강 수준 항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소음인이 평소에 등에 땀이 난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일 체질 내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땀양이 많다’, ‘땀 흘리고 나면 피곤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입맛이 좋지 않고, 평소 피로도도 증가하며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등 부위는 소음인이 발한양과 발한후 피로도도 동시에 증가하는 유일한 항목으로서 背部가 소음인 亡陽證의 대표적인 발한 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인체의 말단인 手足部の 발한 여부와 건강 수준 항목과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소양인이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양인이 발에 땀이 나는 경우 식사량이 많고 평소에 더위를 더 싫어하며 평소 피로도도 증가하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有汗則病解 手足掌心不汗則雖全體皆汗而病不解¹⁵⁾’라 하여 소양인이 手足掌心の 땀을 陰淸之氣가 회복되어 병이 나아가는 긍정적인 증후로 간주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소음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 땀을 흘린 후 피로하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태음인은 입맛도 좋고 땀 흘린 후에 피로하다는 비율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陰部の 발한 여부와 건강 수준 항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음인은 사타구니에 땀이 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입맛이 좋고 발한 후에 상쾌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평소 건강상태도 건강하다는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음인이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발한후의 느낌도 피로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특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태음인 역시 음한이 있는 경우 입맛이 좋으며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소양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발한 후에 피로하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비율이 높아, 소증의 경향이 일관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상의학 관련 문헌에서 음부의 땀에 관해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外腎之汗不汗也.’라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태양인 숫자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되어 문헌상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으며 다만 음한이 있는 경우 음인이 양인에 비해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땀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다고 응답한 태음인은 평소 피로도도 덜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양인의 경우도 피로가 없고 평소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소음인의 경우에는 전신에 땀이 나는 경우 평소 피로가 심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양호하지 않았다.

그밖에 자한, 도한, 식한 등의 발한 유무와 건강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평소 자한이나 도한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체적으로 땀양이 많고 땀을 흘린 후에는 피곤함을 느끼며 평소 피로도도 심하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식한의 경우 식사량이 많고 입맛도 좋으며 평소의 건강상태도 양호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 체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체질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사상의학에서 특이적으로 생리현상을 가늠하고 병증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할

용하고 있는 발한양상에 관해 임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문헌상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뿐 아니라 상반되는 분석결과도 함께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문헌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 체질을 감별하거나 체질병증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운동량, 성별, 병증 등 체질 이외에 발한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체질의 건강 정도를 가늠하는데 식사량이나 식욕, 피로도, 한열선호도, 건강도 등의 항목을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보다 구조화된 설문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교차분석을 통해 발한양상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발한양상이 직접적으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추후의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본 연구는 체질이 비교적 명확한 1565명을 대상으로 발한양 및 발한 부위 등의 발한 양상과 식사량, 식욕, 피로도, 건강도, 한열선호도 등이 체질별로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한양은 식사량, 식욕, 피로도, 건강도, 한열 선호도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으나 체질 간에 의미있는 경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세 체질 모두에서 발한양이 많을수록 식사량이 늘고, 식욕이 좋으며, 더위를 더 싫어하는 등 熱證 경향이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소부위의 발한 여부는 체질에 따라 유의미한 건강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두면부에 땀이 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음인은 양호한 건강수준을 보인 반면, 소양인은 다소 불량한 건강수준이 보였다. 반면 흉액이나 수족에 땀이 나는 경우는 모든 체질에서 대체적으로 불량한 건강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초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별이나 병증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II. 參考文獻

1. Guyton, Arthur C.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Saunders company 9th ed, Mississippi, 1996:915-922.
2. 김광규, 육상근, 전병훈. 한출의 병인병기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10(2): 62-75.
3. 하만수. 汗을 중심으로 한 체질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3;5(1):131-137.
4. Seo W, Song JM. A Stud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bout Sweating.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0;12(2):56-66. (Korean)
5. Kim SM, Song IB,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0;12(2):67-77. (Korean)
6. Kim MG, Park SS. Comparis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of Soyangin's with Taeumin's」 about Sweating and Pissing in the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1):37-43. (Korean)
7. 이제마 저, 박성식 역.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초판, 서울, 집문당, 2003.
8.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동무유고, 서울, 1999.
9. Choi JY, Lee YS, Park SS. The Characteristic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 J, of Oriental Medicine. 2002;23(4):186-195. (Korean)
10. Park HJ, Lee YS, Park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Sweat, Stool, Urine, Digestion) of Soyangin · Soeumin and Taeyangin · Taeumin in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18(1):107-117. (Korean)
11. Baek YH, Kim HS, Lee SW, Rhu JH, Kim YY, Jang ES. Study on the Ordinary Sympt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 23(1):251-258. (Korean)
12. Kim SH, Park KH, Jang ES, Kin JY. Differences in the Symptoms between Exteior-disease and Interior-disease of TE typ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2009;21(2):96-106. (Korean)
13. Kin JH, Shin DY, Choi DS, Kang SI, Song JM. A Case Study of Three Patients who have the idiopathic Excessive sweating on palm and sol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2):122-127. (Korean)
 14. Lee KR, Lee SG, Song JM. A Case Study of Chronic Cough of Taeumin through the Change Process of Sweating.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3):139-14. (Korean)
 1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임. 사상의학, 개정증보 2판, 집문당, 서울, 2004:125-126.

첨 부 1. 발한양상 및 식사량, 식욕, 피로도, 한열선호도, 건강도에 관한 설문지

설문지	
<p>아래 항목은 평소 증상을 중심으로 최근 6개월 내의 본인의 생활습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고 애매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있는 부분은 중복체크 가능합니다.</p>	
발 한 양 상	<p>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 편입니까? 1□많다 2□적당하다 3□적다 4□없다</p>
	<p>(*)땀이 날 경우 주로 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 1□전체적으로 골고루 2□머리와 얼굴 3□목 4□가슴과 겨드랑이 5□등 6□손 7□발 8□사타구니</p>
	<p>(*)식은 땀, 혹은 식사 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두 체크) 1□없음 2□밤에 식은땀 3□낮에 식은땀 4□식사 시 땀남</p>
	<p>땀을 흘리고 난 뒤 기분이 어떻습니까? 1□상쾌 2□피곤 3□아무느낌 없다</p>
식 사 량	<p>평소 하루 식사량은 어떻습니까? 1□보통 2□많다 3□적다 4□일정하지 않다</p>
식 욕	<p>평소 입맛이 어떻습니까? 1□보통 2□좋은 편 3□안 좋은 편</p>
피 로 도	<p>평소 피곤함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1□없다 2□약간 3□중간 4□심하다</p>
한 열 선 호 도	<p>평소 추위, 더위 어느 것이 더 싫습니까? 1□추위 2□더위 3□모두 싫다 4□모두 괜찮다</p>
건 강 도	<p>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지 못함 2□건강하지 못함 3□보통임 4□건강함 5□매우 건강함</p>

첨부 2. 기타 통계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분석항목)

<개별 조사항목의 체질별 분포>

체질		땀양					p-value	체질		발한후기분				p-value
		많음	적당	적음	없음	전체				상쾌	피곤	느낌없음	전체	
소양	빈도	128	181	152	51	512	<0.001	소양	빈도	188	150	173	511	<0.001
	%	25.0	35.4	29.7	10.0	100			%	36.8	29.4	33.9	100	
소음	빈도	63	132	164	47	406		소음	빈도	102	167	137	406	
	%	15.5	32.5	40.4	11.6	100			%	25.1	41.1	33.7	100	
태음	빈도	219	171	172	40	602		태음	빈도	283	128	188	599	
	%	36.4	28.4	28.6	6.6	100			%	47.2	21.4	31.4	100	
전체	빈도	410	484	488	138	1520		전체	빈도	573	445	498	1516	
	%	27.0	31.8	32.1	9.1	100			%	37.8	29.4	32.8	100	

체질		식사량					p-value	체질		입맛				p-value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전체				보통	좋은편	안좋은편	전체	
소양	빈도	304	60	84	66	514	<0.001	소양	빈도	192	275	46	513	<0.001
	%	59.1	11.7	16.3	12.8	100			%	37.4	53.6	9.0	100	
소음	빈도	232	25	86	63	406		소음	빈도	194	157	55	406	
	%	57.1	6.2	21.2	15.5	100			%	47.8	38.7	13.5	100	
태음	빈도	327	94	71	111	603		태음	빈도	189	367	46	602	
	%	54.2	15.6	11.8	18.4	100			%	31.4	61.0	7.6	100	
전체	빈도	863	179	241	240	1523		전체	빈도	575	799	147	1521	
	%	56.7	11.8	15.8	15.8	100			%	37.8	52.5	9.7	100	

체질		한열선호도					p-value	체질		건강상태				p-value
		추위 싫음	더위 싫음	모두 싫음	모두 좋음	전체				건강 못함	보통임	건강함	전체	
소양	빈도	230	165	74	44	513	<0.001	소양	빈도	162	214	135	511	0.019
	%	44.8	32.2	14.4	8.6	100			%	31.7	41.9	26.4	100	
소음	빈도	218	83	77	28	406		소음	빈도	163	165	77	405	
	%	53.7	20.4	19.0	6.9	100			%	40.2	40.7	19.0	100	
태음	빈도	235	248	71	47	601		태음	빈도	196	252	153	601	
	%	39.1	41.3	11.8	7.8	100			%	32.6	41.9	25.5	100	
전체	빈도	683	496	222	119	1520		전체	빈도	521	631	365	1517	
	%	44.9	32.6	14.6	7.8	100			%	34.3	41.6	24.1	100	

<발한양과 개별 소증항목의 연관성 분석>

체질	발한양	식사량 N(%)				p-value	체질	발한양	입맛 N(%)			p-value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보통	좋은편	안좋은편	
태음	많음	105(47.9)	49(22.4)	21(9.6)	44(20.1)	0.007	태음	많음	62(28.3)	141(64.4)	16(7.3)	0.099
	적당	103(60.2)	21(12.3)	24(14.0)	23(13.5)			적당	4(25.7)	113(66.1)	14(8.2)	
	적음	94(54.7)	21(12.2)	18(10.5)	39(22.7)			적음	69(40.1)	91(52.9)	12(7)	
	없음	24(60.0)	3(7.5)	8(20.0)	5(12.5)			없음	14(35.9)	21(53.8)	4(10.3)	
	전체	326(54.2)	94(15.6)	71(11.8)	111(18.4)			전체	189(31.4)	366(60.9)	46(7.7)	
소음	많음	29(46)	11(17.5)	10(15.9)	13(20.6)	0.003	소음	많음	22(34.9)	28(44.4)	13(20.6)	0.004
	적당	83(62.9)	7(5.3)	22(16.7)	20(15.2)			적당	62(47)	62(47)	8(6.1)	
	적음	96(58.5)	5(3)	42(25.6)	21(12.8)			적음	86(52.4)	54(32.9)	24(14.6)	
	없음	24(51.1)	2(4.3)	12(25.5)	9(19.1)			없음	24(51.1)	13(27.7)	10(21.3)	
	전체	232(57.1)	25(6.2)	86(21.2)	63(15.5)			전체	194(47.8)	157(38.7)	55(13.5)	
소양	많음	65(50.8)	29(22.7)	17(13.3)	17(13.3)	0.001	소양	많음	42(32.8)	78(60.9)	8(6.3)	<0.001
	적당	120(66.3)	17(9.4)	29(16)	15(8.3)			적당	70(38.9)	105(58.3)	5(2.8)	
	적음	89(58.6)	9(5.9)	30(19.7)	24(15.8)			적음	59(38.8)	71(46.7)	22(14.5)	
	없음	29(56.9)	5(9.8)	7(13.7)	10(19.6)			없음	20(39.2)	20(39.2)	11(21.6)	
	전체	303(59.2)	60(11.7)	83(16.2)	66(12.9)			전체	191(37.4)	274(53.6)	46(9)	

체질	발한양	한열 선호도 N(%)				p-value
		추위싫음	더위싫음	모두싫음	모두좋음	
태음	많음	53(24.3)	121(55.5)	32(14.7)	12(5.5)	<0.001
	적당	64(37.4)	72(42.1)	18(10.5)	17(9.9)	
	적음	89(51.7)	51(29.7)	18(10.5)	14(8.1)	
	없음	28(71.8)	4(10.3)	3(7.7)	4(10.3)	
	전체	234(39)	248(41.3)	71(11.8)	47(7.8)	
소음	많음	16(25.4)	26(41.3)	20(31.7)	1(1.6)	<0.001
	적당	59(44.7)	29(22)	32(24.2)	12(9.1)	
	적음	107(65.2)	25(15.2)	20(12.2)	12(7.3)	
	없음	36(76.6)	3(6.4)	5(10.6)	3(6.4)	
	전체	218(53.7)	83(20.4)	77(19)	28(6.9)	
소양	많음	36(28.1)	59(46.1)	26(20.3)	7(5.5)	<0.001
	적당	75(41.7)	57(31.7)	24(13.3)	24(13.3)	
	적음	90(59.2)	35(23)	16(10.5)	11(7.2)	
	없음	28(54.9)	13(25.5)	8(15.7)	2(3.9)	
	전체	229(44.8)	164(32.1)	74(14.5)	44(8.6)	

<발한 부위와 개별 소증항목의 연관성 분석>

체질	두면한 여부	땀양					p-value	전체	두면한 여부	한열선호도					p-value	
		많음	적당	적음	없음	전체				추위 싫음	더위 싫음	모두 싫음	모두 좋음	전체		
태음	없음	빈도	47	62	74	26	209	<0.001	없음	빈도	92	70	29	16	207	0.049
		%	22.5	29.7	35.4	12.4	100.0			%	44.4	33.8	14.0	7.7	100.0	
	있음	빈도	172	109	98	14	393		있음	빈도	143	178	42	31	394	
		%	43.8	27.7	24.9	3.6	100.0			%	36.3	45.2	10.7	7.9	100.0	
	전체	빈도	219	171	172	40	602		전체	빈도	235	248	71	47	601	
		%	36.4	28.4	28.6	6.6	100.0			%	39.1	41.3	11.8	7.8	100.0	
소음	없음	빈도	19	55	79	29	182	0.007	없음	빈도	106	30	33	13	182	0.267
		%	10.4	30.2	43.4	15.9	100.0			%	58.2	16.5	18.1	7.1	100.0	
	있음	빈도	44	77	85	18	224		있음	빈도	112	53	44	15	224	
		%	19.6	34.4	37.9	8.0	100.0			%	50.0	23.7	19.6	6.7	100.0	
	전체	빈도	63	132	164	47	406		전체	빈도	218	83	77	28	406	
		%	15.5	32.5	40.4	11.6	100.0			%	53.7	20.4	19.0	6.9	100.0	
소양	없음	빈도	31	63	78	38	210	<0.001	없음	빈도	113	56	23	19	211	0.005
		%	14.8	30.0	37.1	18.1	100.0			%	53.6	26.5	10.9	9.0	100.0	
	있음	빈도	97	118	74	13	302		있음	빈도	117	109	51	25	302	
		%	32.1	39.1	24.5	4.3	100.0			%	38.7	36.1	16.9	8.3	100.0	
	전체	빈도	128	181	152	51	512		전체	빈도	230	165	74	44	513	
		%	25.0	35.4	29.7	10.0	100.0			%	44.8	32.2	14.4	8.6	100.0	

체질	두면한 여부	식사량					p-value	체질	두면한 여부	입맛				p-value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전체				보통	좋은편	안좋은편	전체		
태음	없음	빈도	119	30	23	37	209	0.803	없음	빈도	66	129	13	208	0.646
		%	56.9	14.4	11.0	17.7	100.0			%	31.7	62.0	6.3	100.0	
	있음	빈도	208	64	48	74	394		있음	빈도	123	238	33	394	
		%	52.8	16.2	12.2	18.8	100.0			%	31.2	60.4	8.4	100.0	
	전체	빈도	327	94	71	111	603		전체	빈도	189	367	46	602	
		%	54.2	15.6	11.8	18.4	100.0			%	31.4	61.0	7.6	100.0	
소음	없음	빈도	102	6	48	26	182	0.030	없음	빈도	83	74	25	182	0.714
		%	56.0	3.3	26.4	14.3	100.0			%	45.6	40.7	13.7	100.0	
	있음	빈도	130	19	38	37	224		있음	빈도	111	83	30	224	
		%	58.0	8.5	17.0	16.5	100.0			%	49.6	37.1	13.4	100.0	
	전체	빈도	232	25	86	63	406		전체	빈도	194	157	55	406	
		%	57.1	6.2	21.2	15.5	100.0			%	47.8	38.7	13.5	100.0	
소양	없음	빈도	123	17	39	32	211	0.087	없음	빈도	78	106	27	211	0.036
		%	58.3	8.1	18.5	15.2	100.0			%	37.0	50.2	12.8	100.0	
	있음	빈도	181	43	45	34	303		있음	빈도	114	169	19	302	
		%	59.7	14.2	14.9	11.2	100.0			%	37.7	56.0	6.3	100.0	
	전체	빈도	304	60	84	66	514		전체	빈도	192	275	46	513	
		%	59.1	11.7	16.3	12.8	100.0			%	37.4	53.6	9.0	100.0	

전체	경향한 여부		땀양					p-value	체질	경향한 여부		한열선호도					p-value
			많음	적당	적음	없음	전체					추위 싫음	더위 싫음	모두 싫음	모두 좋음	전체	
태음	없음	빈도	159	147	142	37	485	0.001	태음	없음	빈도	198	194	55	37	484	0.328
		%	32.8	30.3	29.3	7.6	100.0				%	40.9	40.1	11.4	7.6	100.0	
	있음	빈도	60	24	30	3	117			있음	빈도	37	54	16	10	117	
		%	51.3	20.5	25.6	2.6	100.0				%	31.6	46.2	13.7	8.5	100.0	
	전체	빈도	219	171	172	40	602			전체	빈도	235	248	71	47	601	
		%	36.4	28.4	28.6	6.6	100.0				%	39.1	41.3	11.8	7.8	100.0	
소음	없음	빈도	46	107	148	42	343	0.006	소음	없음	빈도	192	66	60	25	343	0.081
		%	13.4	31.2	43.1	12.2	100.0				%	56.0	19.2	17.5	7.3	100.0	
	있음	빈도	17	25	16	5	63			있음	빈도	26	17	17	3	63	
		%	27.0	39.7	25.4	7.9	100.0				%	41.3	27.0	27.0	4.8	100.0	
	전체	빈도	63	132	164	47	406			전체	빈도	218	83	77	28	406	
		%	15.5	32.5	40.4	11.6	100.0				%	53.7	20.4	19.0	6.9	100.0	
소양	없음	빈도	103	155	136	48	442	0.053	소양	없음	빈도	213	132	60	38	443	0.002
		%	23.3	35.1	30.8	10.9	100.0				%	48.1	29.8	13.5	8.6	100.0	
	있음	빈도	25	26	16	3	70			있음	빈도	17	33	14	6	70	
		%	35.7	37.1	22.9	4.3	100.0				%	24.3	47.1	20.0	8.6	100.0	
	전체	빈도	128	181	152	51	512			전체	빈도	230	165	74	44	513	
		%	25.0	35.4	29.7	10.0	100.0				%	44.8	32.2	14.4	8.6	100.0	

체질	흥액한 여부		식사량					p-value	체질	흥액한 여부		한열선호도					p-value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전체					추위 싫음	더위 싫음	모두 싫음	모두 좋음	전체	
태음	없음	빈도	211	56	47	50	364	0.003	태음	없음	빈도	137	161	32	32	362	0.014
		%	58.0	15.4	12.9	13.7	100.0				%	37.8	44.5	8.8	8.8	100.0	
	있음	빈도	116	38	24	61	239			있음	빈도	98	87	39	15	239	
		%	48.5	15.9	10.0	25.5	100.0				%	41.0	36.4	16.3	6.3	100.0	
	전체	빈도	327	94	71	111	603			전체	빈도	235	248	71	47	601	
		%	54.2	15.6	11.8	18.4	100.0				%	39.1	41.3	11.8	7.8	100.0	
소음	없음	빈도	119	15	43	35	212	0.768	소음	없음	빈도	119	41	32	20	212	0.038
		%	56.1	7.1	20.3	16.5	100.0				%	56.1	19.3	15.1	9.4	100.0	
	있음	빈도	113	10	43	28	194			있음	빈도	99	42	45	8	194	
		%	58.2	5.2	22.2	14.4	100.0				%	51.0	21.6	23.2	4.1	100.0	
	전체	빈도	232	25	86	63	406			전체	빈도	218	83	77	28	406	
		%	57.1	6.2	21.2	15.5	100.0				%	53.7	20.4	19.0	6.9	100.0	
소양	없음	빈도	164	40	57	45	306	0.022	소양	없음	빈도	153	89	39	25	306	0.039
		%	53.6	13.1	18.6	14.7	100.0				%	50.0	29.1	12.7	8.2	100.0	
	있음	빈도	140	20	27	21	208			있음	빈도	77	76	35	19	207	
		%	67.3	9.6	13.0	10.1	100.0				%	37.2	36.7	16.9	9.2	100.0	
	전체	빈도	304	60	84	66	514			전체	빈도	230	165	74	44	513	
		%	59.1	11.7	16.3	12.8	100.0				%	44.8	32.2	14.4	8.6	100.0	

체질	홍액한 여부		건강상태				p-value	체질	배한 여부		땀양					p-value
			건강 못함	보통임	건강함	전체					많음	적당	적음	없음	전체	
태음	없음	빈도	105	150	108	363	0.005	태음	없음	빈도	160	121	136	35	452	0.074
		%	28.9	41.3	29.8	100.0				%	35.4	26.8	30.1	7.7	100.0	
	있음	빈도	91	102	45	238			있음	빈도	59	50	36	5	150	
		%	38.2	42.9	18.9	100.0				%	39.3	33.3	24.0	3.3	100.0	
	전체	빈도	196	252	153	601			전체	빈도	219	171	172	40	602	
		%	32.6	41.9	25.5	100.0				%	36.4	28.4	28.6	6.6	100.0	
소음	없음	빈도	80	91	41	212	0.537	소음	없음	빈도	38	90	129	37	294	0.019
		%	37.7	42.9	19.3	100.0				%	12.9	30.6	43.9	12.6	100.0	
	있음	빈도	83	74	36	193			있음	빈도	25	42	35	10	112	
		%	43.0	38.3	18.7	100.0				%	22.3	37.5	31.3	8.9	100.0	
	전체	빈도	163	165	77	405			전체	빈도	63	132	164	47	406	
		%	40.2	40.7	19.0	100.0				%	15.5	32.5	40.4	11.6	100.0	
소양	없음	빈도	98	121	86	305	0.401	소양	없음	빈도	90	132	111	39	372	0.863
		%	32.1	39.7	28.2	100.0				%	24.2	35.5	29.8	10.5	100.0	
	있음	빈도	64	93	49	206			있음	빈도	38	49	41	12	140	
		%	31.1	45.1	23.8	100.0				%	27.1	35.0	29.3	8.6	100.0	
	전체	빈도	162	214	135	511			전체	빈도	128	181	152	51	512	
		%	31.7	41.9	26.4	100.0				%	25.0	35.4	29.7	10.0	100.0	

체질	배한 여부		발한후기분				p-value	체질	수한 여부		식사량					p-value
			상쾌	피곤	느낌 없음	전체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전체	
태음	없음	빈도	210	93	147	450	0.474	태음	없음	빈도	288	81	66	93	528	0.308
		%	46.7	20.7	32.7	100.0				%	54.5	15.3	12.5	17.6	100.0	
	있음	빈도	73	35	41	149			있음	빈도	39	13	5	18	75	
		%	49.0	23.5	27.5	100.0				%	52.0	17.3	6.7	24.0	100.0	
	전체	빈도	283	128	188	599			전체	빈도	327	94	71	111	603	
		%	47.2	21.4	31.4	100.0				%	54.2	15.6	11.8	18.4	100.0	
소음	없음	빈도	82	107	105	294	0.006	소음	없음	빈도	205	23	77	48	353	0.048
		%	27.9	36.4	35.7	100.0				%	58.1	6.5	21.8	13.6	100.0	
	있음	빈도	20	60	32	112			있음	빈도	27	2	9	15	53	
		%	17.9	53.6	28.6	100.0				%	50.9	3.8	17.0	28.3	100.0	
	전체	빈도	102	167	137	406			전체	빈도	232	25	86	63	406	
		%	25.1	41.1	33.7	100.0				%	57.1	6.2	21.2	15.5	100.0	
소양	없음	빈도	130	113	128	371	0.395	소양	없음	빈도	273	51	75	59	458	0.752
		%	35.0	30.5	34.5	100.0				%	59.6	11.1	16.4	12.9	100.0	
	있음	빈도	58	37	45	140			있음	빈도	31	9	9	7	56	
		%	41.4	26.4	32.1	100.0				%	55.4	16.1	16.1	12.5	100.0	
	전체	빈도	188	150	173	511			전체	빈도	304	60	84	66	514	
		%	36.8	29.4	33.9	100.0				%	59.1	11.7	16.3	12.8	100.0	

체질	족한 여부	식사량					p-value	체질	족한 여부	땀양					p-value	
		보통	많음	적음	불규칙	전체				많음	적당	적음	없음	전체		
태음	없음	빈도	300	83	66	100	549	0.680	없음	빈도	198	154	158	38	548	0.749
		%	54.6	15.1	12.0	18.2	100.0			%	36.1	28.1	28.8	6.9	100.0	
	있음	빈도	27	11	5	11	54		있음	빈도	21	17	14	2	54	
		%	50.0	20.4	9.3	20.4	100.0			%	38.9	31.5	25.9	3.7	100.0	
	전체	빈도	327	94	71	111	603		전체	빈도	219	171	172	40	602	
		%	54.2	15.6	11.8	18.4	100.0			%	36.4	28.4	28.6	6.6	100.0	
소음	없음	빈도	214	24	77	50	365	0.017	없음	빈도	55	118	147	45	365	0.515
		%	58.6	6.6	21.1	13.7	100.0			%	15.1	32.3	40.3	12.3	100.0	
	있음	빈도	18	1	9	13	41		있음	빈도	8	14	17	2	41	
		%	43.9	2.4	22.0	31.7	100.0			%	19.5	34.1	41.5	4.9	100.0	
	전체	빈도	232	25	86	63	406		전체	빈도	63	132	164	47	406	
		%	57.1	6.2	21.2	15.5	100.0			%	15.5	32.5	40.4	11.6	100.0	
소양	없음	빈도	279	54	76	59	468	0.911	없음	빈도	110	169	138	50	467	0.037
		%	59.6	11.5	16.2	12.6	100.0			%	23.6	36.2	29.6	10.7	100.0	
	있음	빈도	25	6	8	7	46		있음	빈도	18	12	14	1	45	
		%	54.3	13.0	17.4	15.2	100.0			%	40.0	26.7	31.1	2.2	100.0	
	전체	빈도	304	60	84	66	514		전체	빈도	128	181	152	51	512	
		%	59.1	11.7	16.3	12.8	100.0			%	25.0	35.4	29.7	10.0	100.0	

체질	족한 여부	발한후기분				p-value	체질	음한 여부	입맛				p-value	
		상쾌	피곤	느낌없음	전체				보통	좋은편	안좋은편	전체		
태음	없음	빈도	260	124	161	545	0.002	없음	빈도	178	332	41	551	0.274
		%	47.7	22.8	29.5	100.0			%	32.3	60.3	7.4	100.0	
	있음	빈도	23	4	27	54		있음	빈도	11	35	5	51	
		%	42.6	7.4	50.0	100.0			%	21.6	68.6	9.8	100.0	
	전체	빈도	283	128	188	599		전체	빈도	189	367	46	602	
		%	47.2	21.4	31.4	100.0			%	31.4	61.0	7.6	100.0	
소음	없음	빈도	93	145	127	365	0.212	없음	빈도	187	139	48	374	0.009
		%	25.5	39.7	34.8	100.0			%	50.0	37.2	12.8	100.0	
	있음	빈도	9	22	10	41		있음	빈도	7	18	7	32	
		%	22.0	53.7	24.4	100.0			%	21.9	56.3	21.9	100.0	
	전체	빈도	102	167	137	406		전체	빈도	194	157	55	406	
		%	25.1	41.1	33.7	100.0			%	47.8	38.7	13.5	100.0	
소양	없음	빈도	176	129	160	465	0.037	없음	빈도	179	247	43	469	0.377
		%	37.8	27.7	34.4	100.0			%	38.2	52.7	9.2	100.0	
	있음	빈도	12	21	13	46		있음	빈도	13	28	3	44	
		%	26.1	45.7	28.3	100.0			%	29.5	63.6	6.8	100.0	
	전체	빈도	188	150	173	511		전체	빈도	192	275	46	513	
		%	36.8	29.4	33.9	100.0			%	37.4	53.6	9.0	100.0	

체질	음한 여부		발한후기분				p-value	체질	전신한 여부		피로도					p-value
			상쾌	피곤	느낌 없음	전체					없음	약간	중간	심함	전체	
태음	없음	빈도	260	115	173	548	0.753	없음	빈도	44	168	173	128	513	<0.001	
		%	47.4	21.0	31.6	100.0			%	8.6	32.7	33.7	25.0	100.0		
	있음	빈도	23	13	15	51		있음	빈도	3	50	23	14	90		
		%	45.1	25.5	29.4	100.0			%	3.3	55.6	25.6	15.6	100.0		
	전체	빈도	283	128	188	599		전체	빈도	47	218	196	142	603		
		%	47.2	21.4	31.4	100.0			%	7.8	36.2	32.5	23.5	100.0		
소음	없음	빈도	86	158	130	374	0.003	없음	빈도	25	116	123	93	357	0.828	
		%	23.0	42.2	34.8	100.0			%	7.0	32.5	34.5	26.1	100.0		
	있음	빈도	16	9	7	32		있음	빈도	3	17	14	15	49		
		%	50.0	28.1	21.9	100.0			%	6.1	34.7	28.6	30.6	100.0		
	전체	빈도	102	167	137	406		전체	빈도	28	133	137	108	406		
		%	25.1	41.1	33.7	100.0			%	6.9	32.8	33.7	26.6	100.0		
소양	없음	빈도	174	135	158	467	0.707	없음	빈도	30	143	159	103	435	0.007	
		%	37.3	28.9	33.8	100.0			%	6.9	32.9	36.6	23.7	100.0		
	있음	빈도	14	15	15	44		있음	빈도	13	31	20	13	77		
		%	31.8	34.1	34.1	100.0			%	16.9	40.3	26.0	16.9	100.0		
	전체	빈도	188	150	173	511		전체	빈도	43	174	179	116	512		
		%	36.8	29.4	33.9	100.0			%	8.4	34.0	35.0	22.7	100.0		

체질	전신한 여부		건강상태				p-value
			건강못함	보통임	건강함	전체	
태음	없음	빈도	175	218	118	511	0.005
		%	34.2	42.7	23.1	100.0	
	있음	빈도	21	34	35	90	
		%	23.3	37.8	38.9	100.0	
	전체	빈도	196	252	153	601	
		%	32.6	41.9	25.5	100.0	
소음	없음	빈도	139	148	69	356	0.413
		%	39.0	41.6	19.4	100.0	
	있음	빈도	24	17	8	49	
		%	49.0	34.7	16.3	100.0	
	전체	빈도	163	165	77	405	
		%	40.2	40.7	19.0	100.0	
소양	없음	빈도	145	183	106	434	0.030
		%	33.4	42.2	24.4	100.0	
	있음	빈도	17	31	29	77	
		%	22.1	40.3	37.7	100.0	
	전체	빈도	162	214	135	511	
		%	31.7	41.9	26.4	100.0	